



# 무분별 개발로 생태계 파괴 가속화 우려

사찰 장건사를 살펴보면 당시 지장학(地政學)적인 면이 강하게 고려된 사찰이 많다. 의상의 화엄십찰을 비롯해 논산 반야산 관촉사 등은 대개가 역사의 변혁기에 많이 세워졌다.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 광종은 호족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후백제 유민들을 유화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관촉사를 세웠다.

논산 일대는 동남쪽으로 마이산-대둔산-계룡산으로 이어지는 금남정맥이 지나가지만, 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형적인 비산비야(非山非野)를 보여준다. 관촉사를 품은 반야산도 해발 100m의 생태적인 요소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야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굳이 찾은 까닭은 관촉사의 역사문화적 사격(寺格)과 함께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사찰의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봉은사가 대도시 사찰환경을 대표한다면 이곳 관촉사는 우리 시대 중소도시 사찰의 자연환경 인지를 대표해준다.

일주년을 지나 경내로 오르다보면 숲 그늘 오른쪽 바위 아래에 약수터가 있다. 수량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수질도 매우 의심스러워 약수터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보전당국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표지판을 걸고 하루 빨리 약수터를 폐쇄해야 할 것이다.

관촉사는 요 몇 해 사이에 대규모 불사를 해서 모양새가 크게 달라졌다. 대웅전, 미륵전, 불상, 요사채가 저 나름대로 자기 영토를 갖고 있지만, 형국이 좁다. 대웅보전 주변은 산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와서 갈수기인데도 미나리와 고마리가 자생할 정도로 물이 그득하다. 이 물은 전각 수명에 나쁜 영향을 준다.

관촉사는 석불입상-석등-석탑-배례석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전형적인 일불일탑 양식의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모두가 화강암으로 지은 것이다. 논산 일대의 화강암은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 화강암 및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은 조립질(粗粒質)로서 다른 암석에 비해 박리(剝離, Exfoliation)와 절리(節理)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관촉사 불상이 박리현상으로 시름을 앓아왔는데, 요즘 이 문제로 문화재수리공사에 들어가 있다. 박리현상은 석등에서도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석물 문화재의 박리현상을 치료할 뚜렷한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전설에 따르면, 한 아낙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았더니 큰 바위가 땅속으로부터 솟아나고 있었는데, 이를 조정에서 알고 해명 대사로 하여금 바위에 불상을 조성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봄이면 관촉사 뒤 반야산에는 고사리가 많이 난다. 관촉사 경내에는 넝쿨고사리가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가을이면 넝쿨고사리 단풍도 눈길을 끈다. 넝쿨고사리는 여러해살이 양치식물로, 바위나 나무 등걸을 타고 오른다. 뿌리줄기는 길게 옆으로 뻗고, 잎은 세모진 달걀 모양이다. 번식은 포자나 뿌



고마리.



백로 어미와 새끼.



털두꺼비.

리줄기로 한다.

관촉사 뒷숲은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되어 있는 혼효림이다. 명부전과 삼성각 뒷숲은 전각과 너무 이어져 있어서 산불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공원화된 반야산 숲은 그만큼 산불 발생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각과 숲 사이에 방화공간을 뚫 필요가 있다.

관촉사에서 반야산으로 오르는 길은 시멘트 계단 길이다. 반야산은 지난 1973년 논산시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말이 '자연'이지, 오히려 원래의 자연을 망가뜨리고 들어선 공원이다. 산꼭대기에 공원이 들어서면서부터 관촉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산 위의 비포장길에서 흩날리는 수시로 날아들어 석물문화재의 훼손을 재촉하는가 하면 경내 전각의 지붕을 뿌연게 덮고 있다. 관촉사 약수의 폐정(廢井)도 반야산의 토양과 수질오염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하루에 1000명의 시민들이 반야산을 오르내리는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야산을 찾는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환경용량을 무시한 등산이나 산책은 반야산의 훼손을 더욱 빠르게 앞당길 것이다. 관촉사의 수행환경은 더할 나위도 없다.



넝쿨고사리 단풍.

## 자연공원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약수 폐정 등 피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수행환경에 큰 위협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공원 숲에서 시민들이 무리지어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함부로 공초를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숲속에 천년고찰이 있음을 감안하여 논산시에서 공원 전역을 금연지역으로 정하고 곳곳에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계몽해야 할 것이다.

반야산은 리기다소나무가 단순림 수준으로 우점하고 있다. 고유의 적응은 관촉사 주위에만 몇 그루 남아있다. 이 지역의 야산은 오랫동안 땃나무를 공급하느라 거의 민둥산 수준이었다. 그 후 산림녹화 정책으로 웅단 땃나무 리기다소나무를 조성했는데, 거의가 30~40년생 동령(同齡)숲이다.

얼마 전부터 이 숲에 푸사리균 가지마름병이 번져서 곳곳에서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병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고, 건강한 소나무의 생육을 위해 간벌을 해주어야 한다.

반야산은 산이 높지 않아서 이렇다 할 계곡이 없다. 그래서 건조한 느낌을 주지만, 습기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몇 종류의 이끼들이 보인다. 숲이끼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숲이끼는 점토질의 습한 토양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반야산은 마을에 인접한 산이라 초본의 다양성이 빈약하다. 꽃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는 고마리, 도깨비바늘, 개쑥부쟁이, 산국, 미타리, 짚신나물, 여뀌, 이고들빼기, 쫄래풀, 차풀, 탈쇠서나물 등등이 있다. 열매를 맺고 있는 땃덩이덩굴과 까마중은 주로 논밭이나 야산을 좋아하는 것들이다.

고마리는 여뀌과 식물로, 주로 도랑이나 논 주위에

서식하는 한해살이 풀이다. 키는 60cm 이상 자라며, 줄기에 아래로 향한 가시가 있다. 꽃은 흰색과 분홍색 두 종류이며, 늦가을에 열매가 맺힌다.

땃덩이덩굴은 덩굴손이 따로 없어서 줄기가 물체를 감고 오르는 것이 다른 덩굴식물들과의 차이점이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끝이 뾰족한 편이다. 꽃은 봄에 피고, 포도송이 같은 열매는 가을에 익는다. 예전에는 절에서 줄기를 걸어서 바구니 등을 만드는 데 썼다.

귀화식물도 서양등관나물, 등근잎유충초, 환산덩굴, 개망초, 망초, 미국자리공, 미국기막살이, 풍뎉지, 미국쑥부쟁이 등등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와 있다. 미국자리공의 경우는 마치 관목처럼 자라서 곳곳에서 군락을 지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서양등관나물은 서울 용산에 주둔했던 미군을 통해 들어왔다. 미국자리공만큼 위세는 없지만, 반야산에도 서양등관나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곧 그들의 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반야산 목본은 리기다가 우점한 가운데 땃나무를 제외한 참나무류는 아직 어린 상태이다. 자귀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태산목 등 장승공원을 조성하는 데 심은 활엽수들이 능선 산책로 주변에서 보인다. 일부 구간은 등산객들에 의해 토사가 유출되어 슬쑤리가 드러난 곳도 있다.

활엽수가 소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곤충의 다양성은 빈약하다. 그리고 때가 때 인간 큰모두가 습슬 지상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반야산의 조류상은 비교적 다양하다. 박새류에서부터 딱따구리류를 비롯해 물까치와 딱까치 등 여러 종류의 텃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반야산의 서쪽쪽 자락에는 몇 해 전부터 백로와 왜가리가 날아들어 대규모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다. 매년 10월 초가 되면 남쪽으로 월동을 떠났다가 다음 해 다시 찾아와 짝을 짓고 산란한다.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탐정저수지는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큰고니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철새 4만여 마리가 찾아온다. 1월 초순경이면 반야산 멀리 농경지 위로 수만 마리의 금강 가창오리들이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들뜬에 걸쳐 흩날려 있는 이 야산에 고마리와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로 인해 반야산의 숲이 줄어들고, 그에 반비례하여 등산객들이 배가 되면 이들 포유류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해발 100m 정상에 시멘트로 지은 반야정 팔각각이 세워져 있다. 반야정에 오르면 시야가 확 트인다. 반야산은 주위의 산들과 줄기가 이어지지 않은 독립된 산이다. 관촉사를 중심으로 동쪽은 아지들이 남아있으나, 서쪽은 논산시가지로 이미 많이 개발되었다. 남쪽 자락엔 건강대학교 캠퍼스가, 서쪽 자락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점령군처럼 산자락을 점령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반야산 꼭대기까지 점령해 올라갈 기세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관촉사의 수행환경을 지킬 것인가.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cafe.daum.net/templeecoc

## 황토방을 사찰로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광주에서 20여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 화순군 남면 벽송리 황토방은 산세가 수려하고 조용한 곳으로 황토방을 운영하였으나 주위 여건이 사찰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지금은 삼존불이 봉안하여 법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방·욕실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수련원이나 선방, 요양원으로 운영을 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즉시 법회도 가능합니다.

임시 사찰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상 운영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사찰을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 위치 : 전남 화순군 남면 벽송리 799-799-1, 799-2번지 (광주에서 20분 거리)
- 면적 : 실평수(약 600여평) 법당포함 건축물 7동 (합계 : 약120평)
- 공부상 면적 : 대지(365평), 건축면적(59평)
- 매 매 가 액 : 3억 5천만원(급매)

☎ 011-612-6104/061)371-0330